

독서감상문

- ▶ 도서명 첫 여름, 완주
- ▶ 저자 김금희
- ▶ 출판사 무제
- ▶ 출판연도 2024.6.10.



- ▶ 부서 지방소득세과
- ▶ 직급 시간선택제
임기제 마급
- ▶ 성명 김다윤

유달리도 무더운 이번 여름, 찌더운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는 탓인지 유독 지치는 듯한 요즘이다.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저녁에는 그저 축 처져 있는 날이 거의 매일이었다.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출퇴근하는 단조로운 생활이지만, 집에 돌아오면 그냥 바로 침대에 쓰러진다. 뻘한 루틴과 규칙 안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건 맞지만 무언가 공허함을 느낀다. 과연 오늘 하루 내가 진짜 ‘살아낸’ 건지, ‘흘려보낸’ 건지 잘 모르겠다.

그런 매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, 그래도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놓지 않으려던 나의 눈에 든 책이 있었다. 『첫 여름, 완주』. 제목이 뭔가 독특했다. 처음에는 무언가를 완주하는 주제의 에세이인 줄 알았는데, 자세히 보니 소설이었다.

‘첫 여름, 완주’. 이 제목이 주는 느낌이 참 묘했다. ‘첫 여름’이라는 말에서 뭔가 새로운 시작 같은 기대감도 들었고, ‘완주’라는 단어에서는 끝맺음 같은 안도감이 느껴졌다. 지금의 나는 아마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닐까.

이 책은 원래 오디오북으로 먼저 만들어진 작품이었다. 시각장애인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집필된 소설이라고 했다. 그래서인지 글을 읽을 때 마치 누군가 옆에서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.

주인공 손열매는 룸메이트가 빛을 남기고 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완주라는 마을로 향하게 된다. 그곳에서 장의사 겸 매점을 맡게 되며,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주한다.